



지난 1일 막이 오른 한리일보 갤러리 이디의 백광익 초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 별과 바람 스치는 오름으로 가야겠다



'오름 위에 부는 바람' 백광익 작가.

제주 중진 백광익의 초대전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주제 신작 위주로 9월 25일까지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 백광익 작가는 "현대미술의 불모지, 현대미술의 변방으로 불렸던 제주 미술이 여기까지 이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전시하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뜻"이라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보면 우리 주위에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 역시 '죽도록'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별과 바람이 스치는 오름 위 풍경이 여름 전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지난 1일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에서 막을 올린 백광익의 초대전이다. 지난 4월 문을 연 갤러리 이디의 두 번째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제주를 대표하는 중견 미술인인 백광익 작가의 신작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이름 아래 '오름 위에서' 연작 등 40여 점이 나왔다. 20대 중반이던 1978년에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백광익 작가는 제주 오름 등을 소재로 고단했

## 칸시온앙상블 예술가곡으로 초대

제주 칸시온앙상블이 이달 7일 오후 7시30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예술가곡 스트리밍'으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꾸민다. 칸시온앙상블은 이번 공연에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러시아, 브라질,

미국, 스페인, 프랑스 가곡 등을 소개하며 예술가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존 듀크, 마누엘 드 파야, 차이코프스키, 예르나니 브라가, 폴린 비아르도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짜여진다. 이들은 "청중들

이 예술가곡을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칸시온앙상블은 소프라노 김선형 변소정 고예진 고지연, 테너 고용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음악회엔 피아니스트 조가영씨도 함께한다. 청년연출가 주예령씨가 공연 연출을 맡았다. 전선희기자

##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서예문인화대전

### 제주도미술대전 고용석 '너울' 대상



고용석의 '너울-이미지'

평면·입체 분야 전국 공모 우수·선정작가상 등 15명 입상작은 온라인으로 공개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에서 고용석(제주)의 도예 작품 '너울-이미지'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회장 유창훈)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평면 49명, 입체 11명이 응모했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2차 실제 작품 심사를 벌여 대상, 우수 작가상, 선정 작가상 등 총 15명을 뽑았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고용석 >우수

작가상=김태영 오민수 >선정 작가상=간태현 김동원 김영란 문예지 박상민 윤석민 전영은 현덕식 이미순 신민정 정재훈 나광호. 대상 작가에겐 1000만원의 상금과 더불어 다음년도 개인전 개최가 지원된다. 대상 수상자인 고용석 도예가는 출렁이는 파도 등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감성을 형상화했다. 고 작가는 중앙대 공예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동경예술대 대학원 도예 전공 연구과정 수료, 조선대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졸업자로 열네 차례 개인전을 가져왔다. 대한민국디자인협회 중소기업연합회장상, 제주도공예품공모전 대상, 한국공예가협회 젊은작가상, 제주청



대상 고용석 작가

년작가상 수상 경력이 있다. 이번 1차 심사에서 박성배 심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술 활동의 위축과 무관심 속에서도 예상외로 작품수가 늘었다"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 한편에 실익은 작품들도 있었다"고 평했다. 2차 박성진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에 올라온 응모작 모두 우수했지만 일부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성향·기법이 유사하고 개성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입체와 영상 등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이용한 응모작들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시상식은 2일 개최됐다. 입상작은 미술협회제주도지회 유튜브 채널과 SNS(페이스북)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전선희기자

###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문원일씨 대상

3차 회회 심사 등 거쳐 한문·한글 등 55명 입상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가 실시한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대전에서 문원일(제주)의 한문 서예 작품인 '호망(眺望)'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한문서예, 한글서예, 서각, 전각, 문인화, 캘리그래피 부문에 걸쳐 전국 196점이 응모했다. 1·2차 심사와 3차 회회 심사를 통과한 입상자는 대상 1명, 우수상 3명, 특선 14명, 입선 37명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문원일(한문) >우수상=김종현(한문) 이문석(한글) 김향아(문인화) >특선 >한문=강순여 강봉남 임정택 >한글=윤창완 강



대상 문원일 서예가

병상 송근실 김양선 >캘리그래피=김효은 오현주 >서각=장정관 이복기 >문인화=용미희 문영주 김은희 >입선 >한문=곽재호 김세훈 이용철 정경아 양태석 김주희 강창주 >한글=양진호 문병수 고윤형 김인식 이순정 김정돈 김용호 김유미 오승집 김미자 이경순 >캘리그래피=안정향 김진홍 >서각=백경애 박규근 김찬일 홍인선 진경필 권상근 박종욱 >문인화=김화천 박근영 현은아 송준우 김영희 김미경. 대상을 받은 문원일 서예가는 제45회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추사서예문인화대전 특선 경력 등이 있다. 서예문인화대전 1차 심사(심사위원장 장학수)에서는 "한문(서각), 한글 부문은 전체적인 장법과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증거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